

News

고금리에 이자 부담 '절레절레'... 서울 아파트 월세비중 첫 40% 돌파

메리S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 올 들어 12월까지 총 8만 6,889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의 41.7% 차지... 2010년 통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기록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21년 기준 38.5%로 20년 평균 31.4% 대비 증가... 주택의 월세 비중은 67.3%... 최근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 까다로워진 영향

정부발 대출금리 인하...우리는행부터 시작

매일경제

우리는행,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최대 0.85%p 인하... 금융당국, 최근 금융사 대출금리 모니터링하며 금리 인상 자제 신호 보냈는데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호응한 사례
사측은 내년 4월 30일까지 신규코픽스 6개월 변동 기준 전세대출에 한해 금리 인하... 다른 은행들도 필요성과 조정시기 및 폭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가...

이달 회사채 순발행 전환...기업 자금조달 시장 기지개

연합뉴스

12월 1~9일 기준 ABS 제외 회사채 발행액 총 1조 3,458억원 집계... 상환액은 1조 719억원 기록해 2,739억원 순발행 상태
여러 유동성 지원책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폭 축소 기대감이 커지자 채권시장은 점차 진정세를 보여... 신용등급 AA-인 기업의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는 연 5.391% 기록

인터넷은행 향후 신용카드업 진출 가능성...모바일앱 개선 효과도

뉴스1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후 대형 은행의 가계대출 집중도가 소폭 하락... 2021년 12월 기준 61.9%로 2018년 3월 63.8% 대비 하락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으로 경쟁 촉발된 점도 존재... 계좌이동 서비스, 오픈뱅킹 등 혁신 금융서비스도 경쟁 촉진에 영향... 스몰 라이선스 도입 검토 필요 제기

"삼성 등 빅4 손보사 車보험료 내려달라"

조선일보

빅4 손해보험사에 대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동참 촉구... 민생 부담 완화에 중요한 부분이라 주장... 코로나와 고유가에 차량 이동 감소 및 사고 발생 줄어 손해율 77%로 감소
현재 메리츠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은 각각 최대 2.5%, 2.9% 인하를 적극 검토 중

오락가락 판결...가입자 1조원 보험금 걸린 즉시연금 항방은?

뉴시스

삼성생명, 보험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승소... 서울고법 민사1202부 재판부는 보험 체결 여부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측이 구체적인 설명했다고 판단
관련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들의 판단 엇갈리고 있는만큼 21일 예정된 교보생명 항소심에 업계 이목 집중

증권사 채권 소액 판매 전략 통했다

뉴시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총 19조 6,380억원... 안정적 국채보다 금융채와 회사채를 더 많이 매수... 금융채 5조 4,928억원, 회사채 7조 6,215억원
전반적인 채권 금리 올라가자 수익 얻기 위한 움직임... 또한 증권가의 시스템으로 소액으로도 국채 등 채권 살 수 있게 했던 것이 주요

31개 증권사 "금투세 도입 유예 조속 결정해달라" 공동성명

한국경제

금융투자협회와 31개 증권사, 금투세 도입 유예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하고 국회와 정치권에 입장 표명...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악영향 우려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 전면 시행시, 개인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과 조세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 낼 수 있다 우려... 아직 시스템 등 충분한 준비 필요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